

合成纖維와 東레의 오늘 (上)

— 듀퐁의 나일론特許가 契機 —

東洋에서 工業大國으로 自處하는 日本이야말로 그 基礎는 纖維産業이었다. 20世紀에 들어와서 그들의 섬유산업은 輸出産業의 中心的存在였고 그 산업의 附加價値로서 重工業의 原料와 機械類를 導入하여 現代企業構造의 土臺를 마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日本國力은 紡績女工들의 血汗으로 構築되었다고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日本纖維工業의 發展基盤은 역시 合纖紡이며 그 競爭力이 강한 企業만이 急激히 成長했고 또한 그 契機는 東레(舊 東洋레이온(株))가 美國의 듀퐁會社로부터 도입한 나일론特許가 導火線이 된 것이다.

東레는 1951년에 當時의 日貨 10億圓으로 듀퐁으로부터 노우하우없는 나일론特許技術을 도입했다. 그때의 東레는 資本面으로 보아 10億圓은 巨金이었으며 冒險이었다. 뿐만 아니라 技術料가 10億圓이라는 提議에 東레의 交渉擔當任員이 놀랜 나머지 벌떡 일어나다가 椅子까지 부수었다는 에피소드는 浪說이 아닌 實話이다.

그만큼 東레의 나일론技術料事件은 全日本의 話題가 되었으며 實相인즉 그 金額은 東레의 1953~55년 사이의 總賣出營業利益率의 16%라는 高率이었으므로 當然한 화제거리라 할만 하다.

그때의 東레는 레이온會社서 三井系였으며 紡績工場을 保有하는 레이온業界에서는 上位였으나 纖維産業全體로 볼 때는 上位圈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나일론事業을 시작한지 몇해 안가서 採算上으로 일본

에서 超一流로 變身하고 말았다.

이때 東레의 나일론收益을 看破한 레이온회사와 綿紡會社들이 新規合纖에 손을 대려 앞을 다투었으나 特許網이란 企業戰略에 걸려 袖手傍觀하는 수 밖에 없는 悲慘한 處地에 빠졌다.

그러는 동안에 日本纖維業者들은 나일론에서 벗어나 폴리에스터에 손을 대기 시작하여 東레와 帝人이 英國의 I.C.I會社로부터 아크릴기술을 도입하여 테트론이라는 同一商標로서 綿, 레이온, 麻, 毛, 其他合纖과 混紡 또는 混織製品, 혹은 合纖綿 등 工業用纖維로 需要를 擴大해 나갔다.

이때의 일본섬유업계는 포리에스터가 나오는 덕분에 麻紡이 살았고 綿混와 이서즈, 香港서즈, 각텔드레스 등 多彩로운 製品이 出現하였으며 男子洋服에 그레이色調까지 流行하였다. 또한 女性들엔 미니스커트를 유행시켰다.

그후 東레는 1963년쯤에 나일론과 테트론의 덕택으로 年間 168億圓이란 엄청난 利益을 올려 日本合纖 7會社의 賣出利益 合計額의 70%, 10大紡績會社利益金과는 同額을 誇示하였다. 東레는 나일론의 도입모험으로 全日本 纖維會社의 首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원래 폴리에스터섬유는 듀퐁의 나일론 發明者인 칼 로저스가 나일론섬유의 연구도중에 發見한 것이며 칼 로저스의 研究成果를 基礎로 英國의 카리코會社의 윈필드와 디슨이 2官能性化合物로서 푸탈酸 혹은 텔레푸탈酸에스터를 使用하여 폴리메틸렌텔레푸탈레트를 제조했

고 다시 이를 溶融紡糸로 延伸하여 合成纖維를 제조하는 發明을 完成하였다.

이때 일본에는 重合特許 203045號와 紡糸特許 213515號로 登錄되었으나 모두 特許侵害事件으로 번졌다.

한편 듀퐁은 特許成立 前에 칼리코로부터 美國內權利를 買受하여 1953년에 테크론이란 商標名으로 企業化하였다.

英國의 I.C.I는 英國內獨占實施權과 그 再實施許諾權까지 取得하여 1955년에 벨리렌商標名으로 기업화했다.

일본의 東레와 帝人은 I.C.I로부터 독점실시권과 기술노우하우의 供與條件을 사들여 1958년부터 2社共用으로 테트론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에 이르렀다.

일본안에서 東레와 帝人 以外의 纖維業者의 特許期間終了를 기다려 기업화준비를 서둘렀으나 兩社는 設備의 增強, 市場의 獨占維持의 先手를 쳐서 餘他業者를 당황케 했다

그때서 東洋紡績은 美國의 군이어, 日本레이온은 스위스의 인멘타, 倉敷레이온은 美 몬산트·케미칼과 各各 技術導入契約을 맺고 1961年 外資審議會에 認可를 申請하였다. 이때 I.C.I는 이들 後發 3社를 걸어 特許 權侵害警告를 했고 1962年 1월 29일에는 大阪地法에 東洋紡, 京都地法에는 日레, 5월 29일에는 岡山地法에 倉레를 相對로 各各 訴訟를 提起하였다.

이때까지 東레와 帝人은 3社를 걸어 提訴하지 않았으나 뒤에 損害 補償請求訴訟을 제기하였다. (계속)